

붉은 방의 새로운 계보: 『제인 에어』, 『힐 하우스의 유령』, 『샤이닝』의 가정성 이데올로기와 욕망·공포의 교차*

서 정 은
단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인 에어』(1847), 『힐 하우스의 유령』(1959), 『샤이닝』(1977)에 등장하는 붉은 방의 의미를 비교하며 시대와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작품 모두에서 붉은 방이 가정성(domesticity) 이데올로기에 내포된 욕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피, 폭력, 죽음과 연관되어 전통적으로 고딕 문학에서 공포의 공간으로 재현된 붉은 방은 세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유령이나 심령 현상을 경험하는 장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주인공들이 대면하는 존재는 삼촌, 엄마, 아빠 등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포의 원인이자 필요와 갈망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이런 이중적 의미에 주목하며 이를 규범적 가족 제도 밖에서 보호, 돌봄, 친밀과 사랑을 얻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의 반영으로 읽는다.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글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과 1950년대와 70년대 미국 사회에서 강화된 가정성 이데올로기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세 작품의 붉은 방을 검토한다. 그리고 세 작품 모두에서 붉은 방이 집과 가족에 배타적으

* 본 논문은 2024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로 투사된 돌봄과 사랑에 대한 욕망뿐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 형태에 동반된 폭력과 억압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함을 예증한다. 더하여 그 공간이 공포와 더불어 슬픔과 부인이라는 정서를 동반하는 이유가 가부장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통해서만 돌봄과 사랑이라는 불가결한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교착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주제어: 붉은 방, 가정성 이데올로기, 『제인 에어』, 『힐 하우스의 유령』, 『샤이닝』

1. 들어가며

이 글은 각각 1847년, 1959년, 1977년에 출간된 세 편의 소설 『제인 에어』(*Jane Eyre*), 『힐 하우스의 유령』(*The Haunting of Hill House*),¹⁾ 『샤이닝』(*The Shining*)에 나타난 붉은 방의 의미를 분석하고 세 편의 소설에서 붉은 방의 상징이 유사성을 보이며 공명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글은 19세기 영국과 20세기 중 후반 미국이라는 시대적,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소설 모두에서 붉은 방이 ‘가정성’(domesticity) 이념에 압축된 보호, 사랑, 돌봄에 대한 갈망과 그 가치가 가부장적 억압과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예증할 것이다.

피와의 연관성 때문에 붉은 방은 광의의 고딕 전통에 속하는 문학작품에서 반복적으로 공포의 공간으로 등장해왔다. 「푸른 수염」(“Blue Beard”)에서 성주가 아내에게 절대 열지 말라고 명령한 방이 대표적 예이다. 방 안에는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연 이전 아내들의 시체가 즐비하며 방은 성주 손에 죽은 아내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푸른 수염」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쓴 카터(Angela Carter)의 「피의 방」(“The Bloody Chamber”)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원작의 금지된 방이 상징하는 가부장적 훈육과 폭력성을 피의 이미지로 전면화하며 붉은 방을 공포의 공간으로 제

시한다.²⁾ 포(Edgar Allan Poe)의 「붉은 죽음의 가면」(“The Masque of the Red Death”) 역시 붉은 창으로 장식된 방을 어디에 숨어도 쫓아오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공간으로 그리며 붉은 방을 죽음과 공포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고전적 예이다.

『제인 에어』, 『힐 하우스』, 『사이닝』에서도 붉은 방은 공포의 방이다. 이 방에서 사람이 죽고, 유령이 나타나며, 심령 현상이 일어나 주인공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들이 이 방에서 대면하는 유령이나 심령 현상은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다. 각각 삼촌, 엄마, 아빠와 관련된 이 존재들은 추자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이인 작품 주인공들에게 다른 곳에서 구할 길 없는 보호, 돌봄, 사랑을 제공하는 절대적 필요와 갈망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유령이나 심령 현상 자체가 공포의 원인처럼 보여도, 세 작품의 붉은 방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공포의 더 근원적인 원인은 그들이 갈망하는 보호, 돌봄, 사랑의 제공자가 동시에 구조적인 폭력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이 차이에 주목하며 본 글은 피, 폭력, 죽음과 연결되어 고딕 문학 양식에서 오랫동안 공포의 공간으로 재현된 붉은 방의 전통 내에서 이 세 작품의 붉은 방이 차별적인 공포를 그리며 새로운 계보를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 공포를 가정성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사회 규범으로 작동한 역사적 시기에 규범적 가족 제도 바깥에서 보호, 돌봄, 사랑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정동으로 해석한다. 안전, 보살핌, 친밀, 애착을 포함한 필수적 요구를 규범적 가족 제도와 그에 동반된 억압 구조 외부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 세 작품의 붉은 방이 그리는 공포이며 그런 점에서 단순히 폭력이나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된 기존 고딕 서사 양식 속 붉은 방과 차이를 갖는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해석의 논증을 위해 이어지는 본문은 세 개의 붉은 방, 즉 『제인 에어』의 “붉은 방,”³⁾ 피 같은 액체로 쓴 문장으로 붉게 물든 『힐 하우스』의 침실, ‘살인’(MURDER)을 거꾸로 읽은 『사이닝』의 ‘레드럼’(REDRUM)과 레드럼이 지시하는 가부장의 가족 살해 시도 현장을 각각 빅토리아시대 영국과 20세기 중후반 미국 사회의 가정성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들이 공포와 함

께 드러내는 슬픔과 부인이라는 정서는 가부장적 폭력과 억압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보호, 친밀, 돌봄,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교착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 제안할 것이다.

2. 『제인 에어』의 “붉은 방”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에는 장 제목이 없다. 그러나 제목을 붙인다면 소설의 첫 몇 장은 “붉은 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소설 초반에 잠시 소개되는 이 방은 등장 분량은 적지만 소설의 핵심적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붉은 방”은 고아로 외삼촌 집에 얹혀살며 삼촌마저 죽은 뒤 숙모와 세 사촌의 일상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열 살 제인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촌 존(John Reed)에게 맞선 별로 끌려가 갇히는 침실 이름이다(14).⁴⁾ 삼촌이 이 방에서 숨을 거둔 뒤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어두운 방에 간헐 겁을 먹고 기절하는 제인은 이 일을 계기로 곧 로우드 구빈 학교(Lowood Institution)로 떠나고 그 후 “붉은 방”은 작품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 38장의 소설에서 첫 네 장에만 등장하는 이 방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제인 에어』 비평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공간 중 하나이다. 언급한 것처럼 “붉은 방” 일화가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식을 제시한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전 비평에서 제인의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일화의 배경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던 “붉은 방”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여성주의 비평이다. 특히 쇼왈터(Elaine Showalter), 길버트(Sandra Gilbert)와 구버(Susan Gubar) 등이 “붉은 방”을 여성의 욕망, 열정, 분노를 억압하고 길들이는 가부장적 훈육 공간, 그 억압의 결과 여성의 자아가 분열되는 공간으로 해석한 연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여성주의 비평을 중심으로 유사한 독해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제인의 성장을 그리는 소설을 가부장적 “감금과 [그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붉은

방의 핵심 모티프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변주”되는 과정으로 읽는 방식이 영향력 있는 작품 해석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Gilbert and Gubar 341).

이런 해석 경향에서 “붉은 방”은 무엇보다 가부장적 억압과 훈육 공간이다. 이 경향을 가장 잘 대표하는 쇼왈터의 분석을 예로 들면, 어린 제인의 분노와 권리 주장이 처벌되는 “붉은 방”은 이후 모든 감각적 쾌락을 금지하는 로우드 학교로,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선교사의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는 세인트 존(St. John)의 무어 하우스(Moor House)로, 훈육되지 않는 ‘미친’ 여자 버사 메이슨(Bertha Mason)을 가두는 쏘필드 홀(Thornfield Hall)의 다락방으로 반복해 나타난다. 그리고 일련의 “붉은 방”을 대면하며 구속과 탈출을 반복하는 제인의 성장은 길들일 수 없는 여성의 욕망을 체화한 버사, 제인의 또 다른 자아를 상징하는 버사의 죽음과 함께 완성된다. 반항적이고 열정적인 제인의 이면이 화재로 인한 버사의 죽음으로 정화된 후에야 제인은 아내와 엄마라는 빅토리아시기 여성의 규범적 성 역할을 허락받는다(Showalter, *Literature* 114-22).

“붉은 방”이 가부장적 억압과 훈육 공간이라는 해석은 반박하기 어렵다. 제인을 그 방에 가두고 후에 로우드로 보내는 숙모 리드(Mrs. Reed)는 제인에게 “교정이 필요한 결점”이 있어서 벌을 준 것이며 그 결점이 “격한 감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JE 45). 어린 제인이 반쯤은 냉소적으로, 반쯤은 진심을 담아 “타락”(corruption)으로 부르는 이 걱정은 부당한 폭력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제인의 권리 의식과 힘의 표현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붉은 방”의 가장 중요한 체벌과 훈육 대상이 된다(JE 33). 리드 가문의 어린 “주인”(master) 존 리드에게 맞선 벌로 방에 갇힌 후에도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던 제인 역시 이전 가장 리드 삼촌의 죽음으로 “무겁게 성화”된 방의 권위에 곧 압도되어 겁에 질리고 만다(15, 17).

그러나 “붉은 방” 일화를 반항적인 여주인공과 억압적인 가부장적 권위의 대결 구도로만 해석하면 제인이 이 방에서 느끼는 모순적 감정, 즉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삼촌의 유령이 무덤에서 나와 연민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상상이 제인에게 불러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위안과 공포를 설명하기 어렵다. 자신이 어릴 때 죽은 외삼촌

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인은 삼촌이 고아가 된 자기를 집으로 데려오고 죽기 전에 아내 리드 부인에게 제인을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걸 안다. 그리고 삼촌이 살아 있었다면 자신을 다정히 보살펴주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실제로 훗날 리드 부인이 회상하듯, 제인의 삼촌은 부모를 잃은 조카를 “가여워하고 으르며 친자식처럼 대했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노상 자기 침대 옆에 끼고 있으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아내에게 조카를 거두겠다는 맹세까지 받는다(*JE* 267). 그러므로 삼촌이 병을 앓다가 숨을 거둔 “붉은 방”은 우드(Madeleine Wood)의 날카로운 관찰처럼 가정의 권위가 죽어서도 유지되는 체벌과 훈육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어린 제인이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받은 장소”이기도 하다(98). 유령이 실제로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기절을 할 만큼 무섭지만, 조카가 학대받는 모습에 안식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나와 안 타까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삼촌의 모습이 “생각만으로는 위안을 주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JE* 20).

“붉은 방”에 갇힌 제인을 압도한 공포의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유령, 더 구체적으로 삼촌의 유령이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로우드로 떠나기 전까지 제인의 내면 풍경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3장과 4장은 제인이 이 방에서 느낀 공포의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랑과 돌봄을 억압적 가족관계 밖에서 얻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어린 제인의 불길한 감지를 그리기 때문이다. “붉은 방”에 갇혀 겁을 먹고 의식을 잃은 일 이후에 평소보다 더 리드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제인은 연말과 연초의 축제 분위기에서 배제되어 구석진 층계참에서 거실의 대화나 피아노 소리, 그릇 소리를 들으며 긴 시간을 보낸다. 숨어서 연회 소리를 엿듣는 일에 지치면 아무도 없는 아이방으로 가서 벽난로 불이 잦아들 때까지 무릎에 인형을 안고 있다가 불이 꺼질 즈음 서둘러 차가운 유아용 침대로 들어간다. 침대로 갈 때 제인은 언제나 인형을 데려간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애정을 느낄 다른 대상이 없어서 작은 허수아비 같이 낡고 바랜 목각 인형을 사랑하고 아끼며 위안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다(*JE* 35). 로우드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당한 처벌과 잔인한 처우에 항의하며 제인은 리드 숙모에게 “나는 감정이 없다고, 조금의 사랑이나 다정함 없이도 살 수 있

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따져 묻는다. 그리고 “난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라고 단언한다 (JE 44). 다정함과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가결한 가치인지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작품의 시작에서 “붉은 방”이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제인의 성장을 둘러싼 핵심 문제는 따라서 그 방이 반항적인 여주인공을 길들이는 가부장적 처벌과 훈육 공간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다. 절실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한 유일한 존재가 자신을 가두고 처벌한 권위, 어린 “주인”에게 계승되고 숙모가 대리 행사한 권위의 기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제인이 반복해서 대면해야 하는 더 풀기 어려운 성장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우드는 “붉은 방” 일화가 제인과 부성 간의 관계, 그로부터 확장되어 이후 제인과 다른 남성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 양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처벌과 훈육 주체로서의 아버지에게 대한 제인의 반감과 아버지의 보호적 양육 안에 있고 싶은 욕망 간의 해소되지 않는, 따라서 반복되는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00-01).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우드는 길버트와 구바처럼 붉은 방과 제인의 관계를 감금과 탈출로 설명하기보다 구속적 보호 상태에 대한 제인의 저항과 욕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08-09). 실제로 여주인공의 성장을 그리는 다른 많은 빅토리아 소설처럼 사랑과 결혼을 성장의 최종 목적지로 제시하는 『제인 에어』에서 사랑과 결혼의 추구는 가부장적 통제와 보호에의 귀속과 분리되기 어렵다. 분리 영역 이데올로기(ideology of separate spheres)에 기반해 집과 가족은 여성의 영역으로,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사회 활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되었지만, 집과 가족 성원 모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소유권과 대변권이 남성 가장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결혼은 궁극적으로 남성 가장의 구속과 보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우드의 분석처럼 제인이 아버지 혹은 남성 가장의 통제와 보호를 거부하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욕망한다면 이는 제인이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집에 투사된 돌봄과 사랑의 가치를 가부장적 가족 제도 바깥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18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사회는 생산과 소비 영역이 선명히 구분되기 어려운 농업 및 가내수공업 경제에서 생산 영역과 소비 영역의 구분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 경제 구조로

재편된다. 시장 경제의 주역이었던 중산층은 귀족과 하층민 모두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가정 영역을 자신의 도덕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소외된 노동과 경쟁에 대비되는 사랑과 돌봄, 도덕적 평화의 공간으로 집을 우상화한다. 여성이 ‘집 안의 천사’(angel in the house)로 돌봄을 담당하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전담하는 ‘분리 영역 이데올로기’는 이런 ‘가정성 숭배’(cult of domesticity)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 쌍으로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종교적 위상을 갖는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⁶⁾ 그리고 이 이념의 강력한 영향 아래, 거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은 가족의 이미지는 “세상의 분쟁과 풍파”에 맞서는 “연결의 상징”이자 “온기와 휴식”의 원천으로 굳어졌고 집 안의 천사로 표상된 여성과 부양자이자 보호자인 남성 가장의 규범적 역할 또한 이와 함께 공고해졌다(Hall 85).

대표적인 빅토리아시대 소설가 디킨스(Charles Dickens)가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 『황폐한 집』(*Bleak House*), 『낡은 골동품 가게』(*The Old Curiosity Shop*) 등에서 반복적으로 고아를 주인공으로 삼아 집의 상실을 단순한 의식주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결핍과 동일시하고 성장의 최종 목적을 집과 사랑의 회복으로 제시하는 설정은 이 지배적 이념의 전형적 반영이자 재생산이다. 『제인 에어』를 포함해 많은 빅토리아시대 성장소설이 주인공의 사랑과 결혼을 줄거리의 최종 귀결로 삼은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물화, 소외, 착취가 지배하는 시장의 대안적 가치, 특히 이해관계를 벗어난 사랑과 돌봄의 가치가 집과 가족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결혼이 계급이나 인구 재생산 목적의 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상적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우드가 주목한 부성에 대한 제인의 모순적 감정은 집에 압축된 가치를 욕망하지만, 그 가치를 제공하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성별 분업 및 위계와는 갈등하는 주인공의 상황에서 비롯된 교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이나 다정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단언했던 어린 제인의 성장기는 물론 사랑과 집을 찾는 여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이 된 제인은 사랑 못지않게 사회 활동, 열정적으로 몰두할 지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이 여성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푸딩을 만들고 양말을 뜨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방에 수를 놓는 일만을 강요받는” 삶을 산다면 남자든 여자든 “완전히 정체되고, 꿈쩍달작할 수 없는 구속”으로 인해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JE* 130). 문제는 제인이 사랑과 여성의 자율성을 함께 추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영역 분리와 성별 분업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 사랑과 돌봄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투사한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 돌봄, 사랑의 확보는 “푸딩을 만들고 양말을 뜨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방에 수를 놓는 일만을 강요받는” 삶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성주의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붉은 방” 일화는 단순히 제인의 불우한 유년기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제인의 성장을 둘러싼 핵심 문제를 작품 초반에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방이 제시하는 제인의 문제는 여성의 힘과 욕망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가부장적 감옥과의 반복적인 대면, 혹은 억압을 동반한 보호자를 향한 모순적 욕망의 반복만은 아니다. “붉은 방” 일화는 “사랑이나 다 정함 없이 (...) 살 수 없[다]”고 확신하지만, 가부장적 가족 제도 바깥에서, 혹은 규범적 성 역할과 위계에 순응하지 않고 그 불가결한 가치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인의 현재와 미래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설 후반에서 연인 로체스터(*Rochester*)가 이미 결혼을 했으며 그 아내가 자신이 사는 쏘넬드 홀 3층에 감금된 버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제인은 쏘넬드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로체스터를 떠나면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해줄 사람이 누가 있지?”라는 두려움과 “더 외롭고, 친구가 없을수록,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존에의 욕구가 팽팽히 맞선다(*JE* 365). 연인을 포함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줄 관계와 자존, 사랑과 자율성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린 제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붉은 방”에서 겁에 질려 대면한 자신의 현실이자 미래였던 셈이다.

여성 고딕 장르에 대한 비평이 주지하듯 감금, 죽음, 억압, 광기 등을 포함한 고딕 메타포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박탈당한 가부장 사회 내 여성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효과적인 문학 장치로 기능해 왔다(Wallace and Smith 2). 부당한 폭력에 항의해 어린 “주인”에게 대든 제인의 “격한 감정”을 처벌하는 “붉은 방”은 그런 점에서 전형

적인 여성 고딕 메타포인 동시에 가부장적 감금, 억압, 처벌을 중요한 공포의 대상으로 그린 여성 고딕의 충위를 넓히는 상징이기도 하다. 규범적 여성성을 위반할 때 받게 되는 처벌만이 아니라 그 위반에 동반될 상실, 규범적 가족관계와 그에 수반된 성 역할 바깥에서 구하기 어려운 사랑과 돌봄의 상실 역시 두려움의 대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유산 상속으로 제인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벼사가 일으킨 화재로 첫 결혼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한편 시각과 한 손을 잃어 남성성이 훼손된 로체스터를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인 에어』는 “붉은 방”의 타협적 출구를 제공한다. 그러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사회만큼 강력한 가정성 이데올로기와 성별 분업이 지배한 1950년 미국 사회에서 또 다른 붉은 방에 갇힌 『힐 하우스』의 주인공 엘리노(Eleanor Vance)는 그런 타협적 출구의 발견에 실패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착취적인 돌봄 노동의 구속 바깥에서 휴식과 사랑을 누릴 집을 찾으려는 엘리노가 직면하는 또 다른 붉은 방의 공포를 살펴본다.

3. 『힐 하우스』의 붉은 방과 집의 부름

잭슨(Shirley Jackson)의 1959년 출간작 『힐 하우스』는 32살의 미혼 여성 엘리노가 귀신들린 집으로 알려진 힐 하우스에서 4주간 진행될 심령 현상 실험 초대에 응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힐 하우스에 오기 전, 엘리노는 11년간 병석에 누워 있던 엄마를 돌보고, 엄마가 죽은 후에는 결혼한 언니 집 아기방에서 지내면서 어린 조카를 보살폈다. 엘리노가 12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3일간 돌이 쏟아진 심령 현상이 있었는데, 힐 하우스에서 진행할 실험 참가자를 찾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몬태규 박사(Dr. Montague)가 엘리노를 힐 하우스로 초대한다. 엘리노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이를 봐줄 사람을 잃기 싫고 유산으로 함께 산 차를 엘리노가 사용하는 것이 싫어 반대하는 언니와 형부 몰래 엘리노는 힐 하우스로 떠나고 그곳에서 여러 심령 현상을 겪은 후 신경 쇠약 상태에서 결국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힐 하우스의 나무를 들이받아 죽는다.

『제인 에어』에서와 달리 『힐 하우스』에는 공식적으로 붉은 방으로 불리는 방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역시 실험 참가자로 초대되어 엘리노의 침실과 연결된 침실을 쓰는 테오도라(Theodora)의 방이 『제인 에어』의 “붉은 방”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어느 날 피 냄새가 나는 붉은 액체로 “집으로 오렴, 엘리노”⁷⁾라고 쓴 문장이 그 방 벽에서 발견되고, 벽에서 흘러내린 붉은 액체로 테오의 옷장과 옷, 바닥 깔개까지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155).⁸⁾ 그러나 선홍색 테이블 보와 붉은 커튼, 양탄자로 장식되어 “붉은 방”으로 불리는 『제인 에어』의 침실과 이 방이 갖는 유사성이 물론 색상만은 아니다.⁹⁾ 그보다는 이 방을 물들인 붉은 글씨가 집에 대한 주인공의 두려움과 갈망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점이 『제인 에어』의 “붉은 방”과 이 방 사이에 존재하는 더 중요한 공통점이다.

이 방 자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드물지만, 방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주인공을 소환하는 문장의 “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두 방향의 주요한 분석이 있다. 첫 번째는 집을 분리와 합일의 모순적 욕망 대상인 엄마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이 해석은 임신과 육아 시기 엄마와 아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연결 상태에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는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기 위해 벗어나야 할 존재이자 성장 후에도 돌아가고 싶은 충만한 합일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여아는 성장 후 본인이 다시 자아의 경계가 지워지는 임신과 양육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마라는 존재에 연루된 자아 상실의 두려움과 연결에 대한 욕망 간 갈등이 자아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지속적인 도전으로 작용한다. 1980년대에 캐한(Claire Kahane)이 처음 성이나 집에 고착되어 그 공간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공포이자 위안으로 느끼는 여주인공의 양가감정을 여성 고딕의 주요 주제로 정의하고 『힐 하우스』를 여성 고딕의 전형적 작품으로 읽은 이래 작품의 귀신들린 집을 엄마로 해석하는 경향은 최근까지도 큰 영향력을 유지해왔다(336-42).¹⁰⁾ 힐 하우스에서 여러 심령 현상에 노출되어 두려움에 떨면서도 집과 사랑에 빠져 떠나기를 거부하는 엘리노의 이중적인 태도가 캐한의 분석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엘리노

가 경험하는 여러 심령 현상이 죽은 엄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진 설득력과 영향력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 다른 분석 경향은 『힐 하우스』가 그리는 집의 공포를 여성에게 주부 이외의 역할을 허락하지 않은 1950년대 미국의 억압적인 성별 분업 상황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차 대전 후 미국 사회에는 19세기 영국 못지않은 가족생활 숭배와 강력한 성별 분업 이념이 팽배했다. 귀향 군인에게 직업과 집을 돌려줄 필요성에 더해 교외의 소비 중심 중산층 핵가족 생활 양식을 미국의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상대 진영에 과시할 상징으로 채택한 냉전 시대 국제 관계 역학을 배경으로 가정성 이데올로기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 기반해 두 번째 비평 경향은 단란한 가족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강요된 성 역할,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 제한과 강요된 가사 노동을 작품이 그리는 집의 공포로 해석한다.¹¹⁾

첫 번째 경향의 비평은 힐 하우스의 심령 현상으로 인해 심신의 위협에 노출되면서도 집과 사랑에 빠져 떠나기를 거부하는 엘리노의 양가감정이 가진 중요성을 포착하는 통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보편적 딜레마로 탈 역사화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사회 비판을 간과하는 면이 있다. 두 번째 경향은 전후 미국 사회의 강요된 성 역할에 대한 작품의 명백한 비판을 주목하지만, 힐 하우스가 공포의 공간일 뿐 아니라, 엘리노에게 과거 집과 가족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돌봄과 휴식, 친밀함을 제공하는 대안적 가정 공간이기도 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엘리노의 침실 옆 방 벽을 붉게 물들인 문장 속 집을 1950년대 미국의 규범적 집과 이 집의 억압적 성별 분업에서 벗어나 돌봄과 휴식,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대안적 집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힐 하우스에 대한 엘리노의 양가감정과 해소할 수 없는 그 감정의 교착 상태를 작품의 구체적 사회 비판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집이라는 갈망의 대상이 억압적 성 역할과 얽혀 있는 현실에 대한 엘리노의 슬픔과 공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인 『힐 하우스』의 붉은 방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귀신들린 집에서의 심령 현상 실험이라는 비현실적 설정과는 달리 작품은 사실 처

음부터 힐 하우스가 엘리노에게 사랑 없는 가족관계와 보상 없는 돌봄 노동으로부터의 탈출이자 그 대안을 찾으려는 현실적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 엘리노는 32살의 미혼 여성으로 11년간 아픈 엄마를 돌보고 엄마가 죽은 후에는 조카를 보살피며 언니 집에 얹혀산다. “죽은 엄마 말고 가장 증오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언니”라고 느끼는 엘리노는 애정 없는 엄마와 언니에게 감사 없는 노동을 제공하며 살아온 그간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소소한 죄책감과 책망, 한결같은 지루함과 끝없는 우울감”으로 점철된 시간으로 정의한다(HH 6). “짜증 많은 노인네를 의자에서 부축해 침대에 누이고, 국이나 죽을 담은 쟁반을 끝없이 차려 나르고, 눈을 질끈 감고 더러워진 침구를 치운” 그 세월 내내 엘리노는 이 일상을 벗어나게 해 줄 “힐 하우스 같은 어떤 일”을 고대해왔다(7). 엘리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형부는 힐 하우스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야만적 제의”를 들먹이고 언니는 그런 활동이 미혼 여성에게 특히 부적절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지만 엘리노는 상관하지 않는다. 두려운 것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떠날 곳이 있지만 하면 힐 하우스가 아니라도 “어디로든 갈 생각”이기 때문이다(8). 힐 하우스가 현실 탈출과 대안 모색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힐 하우스까지 가는 여정에서 엘리노가 하는 공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미심장하게도 이제 막 시작된 낯설고 새로운 삶에서 엘리노가 기대하는 것은 돌봄과 휴식이 있는 집과 선택의 자유다. 예를 들어 돌사자 상이 있는 집 앞을 지나가며 엘리노는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상상한다. 상상 속 집에는 깨끗하게 청소된 방이 있고 품위 있는 노부인이 은차잔을 올린 다과 쟁반을 내오거나 저녁이면 건강에 좋은 엘더베리 술을 따라주며 엘리노를 보살핀다. 정원에서 키운 채소와 가금류, 집에서 만든 자두 잼으로 식사를 하고 밤에는 흰 차양을 친 침대에서 잠을 잔다. 평생 가족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했지만 누리지는 못한 집의 안락과 보살핌을 꿈꾸는 것이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바닥에 별이 있는 자기 컵이 없으면 우유를 마시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소녀를 보면서는 “당연하지. 나도 그럴 거야. 별이 그려진 컵. 물론이지”라고 소녀를 응원한다(HH 22). 응석이라며 받아주지 않으려는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별 컵이 아니면 우유를 먹지 않겠다는 주장을 관철하는 모습

에 만족을 느끼며 엘리노는 “사람들이 너를 틀 안에 가두게 두면, 다시는 네 별 컵을 못 볼 거야”라고 소녀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삭인다(22). 힐 하우스로 떠난 결정 자체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수한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이고 강요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숙식에 작으나마 보수도 받는” 힐 하우스의 생활 역시 엘리노가 기대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에 부응한다(17). 몬태규 박사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엘리노는 기쁨 없는 과거의 시간 내내 “힐 하우스 같은 어떤 일”이 생기기를 기다려왔다고 생각하는데 힐 하우스는 정확히 엘리노가 바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힐 하우스에 도착한 첫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고 깨어난 엘리노가 “힐 하우스가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나뿐인가?”라고 자문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HH 95).

문제는 힐 하우스의 심령 현상만큼이나 힐 하우스가 엘리노에게 제공한 대안적 삶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다. 엘리노의 언니는 몬태규 박사의 실험이 “미혼 여성이 알아서는 안 될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힐 하우스에서의 실험은 언니의 암시와 달리 성적 일탈의 가능성보다 규범적 역할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엘리노 같은 미혼 여성에게 특히 “부적절”한 경험이다(HH 8). 익히 알려진 것처럼 1950년대 전후 미국 사회는 여성 주부와 남성 가장 및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 구성으로 규정하고 가정주부 이외의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여성을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했다. 큰 인기를 누리며 1957년에서 63년까지 방영된 텔레비전 시트콤 <비버에게 맡겨둬> (*Leave It to Beaver*)의 클리버(June Clever)처럼 가족을 위해 공들여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아늑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자녀 양육과 남편 외조에 헌신하는 주부가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용인된 여성의 역할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보모, 간호사, 웨이트리스 등 크게 보아 가사와 돌봄 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직종에만 종사할 수 있었고 서정은의 압축적 요약처럼 “가정과 모성 경계 너머에서 경제적 독립이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이상한’ 존재로 취급”되었다(114).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1948년 출간된 「제비뽑기」(“The Lottery”)로 이미 인정받은 작가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가장이기도 했던 잭슨 역시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환자 정보의 직업란에 작가 대신 주부를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창

작을 위한 시간은 차치하고 끝없는 가사와 육아 사이 잠깐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서정은 115-16). 다시 말해 32살의 미혼 여성 엘리노가 넓은 의미의 주부 역할 바깥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삶의 기본적 필요와 이상화된 집에 투사된 휴식과 돌봄, 친밀한 관계를 확보할 방법은 1950년대 미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 미혼 여성이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힐 하우스에서의 실험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에 삼 일간 돌이 쏟아졌던 일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HH 5).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힐 하우스의 예외적 상황은 당연히 임시적이고 취약하다. 테오가 엘리노에게 일깨우듯 힐 하우스는 잠깐 머무는 시골 별장 같은 곳이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고” 그들 모두는 여름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HH 209). 돌아갈 집이 없다고 털어놓은 엘리노는 “너랑 같이 집으로 갈게”라고 테오와 함께 새로운 집을 꾸리고 싶은 바람을 표현해보지만 테오는 차갑게 거절한다(208). 작품은 힐 하우스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이 초현실적 현상인지,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한 자연 현상인지, 혹은 엘리노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엘리노가 겪는 심령 현상은 다분히 애써 도망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복도 멀리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와 엘리노와 테오의 침실 방문을 두들기는 정체 모를 소리를 잠결에 들은 엘리노는 그 소리를 밤낮없이 자신을 찾던 엄마의 호출로 생각한다. 처음에는 복도 벽에 분필로, 다음에는 자기 방에 연결된 테오의 방 벽에 지울 수도 없는 붉은 액체로 적힌 “집으로 오렴, 엘리노”라는 문장 역시 엘리노를 힘들게 떠나온 현실로 소환한다. 몬태규 박사는 정서적으로 점점 더 불안해지는 엘리노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그러나 마지못해 차에 올라탄 엘리노는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힐 하우스의 나무를 들이받아 죽음을 선택한다(HH 245). 설사 자신의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 하더라도 돌봄과 휴식, 자신이 선택한 관계와 삶이 가능한 힐 하우스를 떠나 강요된 돌봄 노동의 대가로 의식주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복도에서 방문으로 다시 또 침실 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며 도망친 엘리노를 규범적 집과 그 안의 역할로 소환하는 현실의 구속만이 작품이 그리는 공포는 아니다. 그 현실을 떠나며 엘리노가 찾으려고 한 다른 가능성, 돌봄을 주기만 하는 대신 누릴 수도 있는 집, 선택이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 역시 엘리노가 직면하기 어려운 상실과 공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을 붉게 물들이며 엘리노를 집으로 부르는 문장은 엄마라는 존재에 압축된 주부의 자리와 그 구속적 역할로 돌아오라는 현실의 압박인 동시에 엄마로 상징된 이상화된 집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엘리노 자신의 내적 요청이다. 따라서 실제로 힐 하우스의 침실 벽에 쓰인 것이든 엘리노의 마음속 상상이든 간에, “집으로 오렴”이라고 엘리노를 부르며 방을 붉게 물들이는 문장은 집의 휴식과 돌봄, 애정을 포기할 수도, 강요된 성 역할과 가사 노동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교착 상황의 파열을 외화한다. 그리고 한 세기와 대서양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또 다른 붉은 방에서 집에 대한 욕망과 공포 사이의 교착에 사로잡힌 엘리노는 화재와 유산 상속 같은 우연의 연속 속에서 다분히 상상적인 타협을 발견하는 제인과 달리 대안이나 해소 없는 파국을 맞는다.

4. 『샤이닝』의 ‘레드룸’ (REDROOM)

엘리노가 현실에서 대안을 찾을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힐 하우스』의 결말은 귀신 들린 집이라는 작품의 설정과는 달리 다분히 사실주의적인 선택이다. 남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담하는 교외 중산층 핵가족은 전후 냉전 시기 미국의 경제 부흥기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념적,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한 가족 형태였다. 2차 대전 참전 귀향 군인들은 용기와 희생을 통해 국가와 세계를 구한 영웅이자 위험에 맞서 가족과 나라를 지킨 전통적 남성성의 살아 있는 증거로서 사회적 권위를 확보했다. 1944년 제정된 참전군인지원법(GI Bill)은 무상 대학 교육,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통해 귀향 군인의 헌신을 보상하고 그

들이 성공적인 중산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경제 성장 덕분에 혼자 돈을 벌며 교외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아내와 아이들로 구성된 소비 중심 핵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특별히 성공한 소수가 아니라 1950년대 평균적인 미국 성인 남성 다수에게 성취 가능한 삶의 방식이었다. 당연히 돈을 버는 남편과 주부 아내의 성별 분업에 기반한 가족 역시 단지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인 중산층의 실제 가족 형식이었다.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견고한 기반을 가진, 따라서 그 외부를 모색하기 어려운 가족 형태로 공고화된 것이다.

이와 달리 베트남 전쟁의 사실상 패전과 오일쇼크 이후인 1977년 출간된 킹(Stephen King)의 『사이닝』은 규범적 가족 형태와 부양자로서의 남성 가장에 대한 1950년대의 기대는 유지되지만,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1970년대 미국의 이념적, 경제적 상황에서 50년대식 가족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토랜스(Torrance) 일가 이야기를 다룬다. 토랜스 가의 가장 잭(Jack)은 팔루디(Susan Faludi)가 “미국 남성의 위기”라고 부른 현상을 체현하는 인물이다(7). 이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 세대의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역군으로 활동했다. <비버에게 맡겨둬> 만큼이나 1950년대에 큰 인기를 누린 시트콤 제목 <아빠가 가장 잘 알아>(Father Knows Best)가 보여주듯 20세기 중반 미국 남성들은 국가와 집의 운영을 “가장 잘 [아는]” 존재로 인정되었고 그에 부합하는 권위를 누렸다. 그러나 명분 없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만을 감수한 베트남전의 종전과 이어진 오일쇼크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실업률이 높아진 1970년대 미국 남성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직면한다.¹²⁾ 장기 경기 침체와 여성 운동의 성장, 광고에만 존재하는 장식적인 마초 남성성의 범람 속에 그들은 “직업과 집, 차, 가족을 이미 잃었거나 잃고 있었고 (...) 전형적인 성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부재” 상태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감정에 시달렸다(Faludi 9). 전통적 남성성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성 역할의 모색이나 형성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 폭력은 이 세대 남성들이 잠깐이나마 가장으로서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확보하는 쉬운 방식이었다(8-10). 팔루디는 사회적 인정도 경제적 안정도 없이 “가진 것이라곤 [익숙한] 성 역

할 규범”뿐인 이들이 “아내를 패는 현대 남성의 전형”이 되었다고 분석한다(9).

『사이닝』의 책은 든든한 부양자이자 보호자인 1950년대의 강한 아버지상에 고착되어 있지만, 역할 수행에 실패하고 폭력에 기대 무너진 권위를 되찾으려 하는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위태로운 중산층 젊은 가장이다. 알코올 중독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만 어떻게든 개심해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어 보려고 노력하던 그가 결국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광기 어린 살인마로 변해가는 과정은 공포 소설 『사이닝』의 중심 서사를 이룬다. 작품의 또 다른 긴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일어날 일을 예견하며,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책의 다섯 살 아들 대니(Danny)의 불길한 예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 책과 아내 웬디(Wendy)가 아직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희망을 품고 있을 때도 대니는 시종일관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는데 작품은 설명할 수 없는 대니의 예감이 차츰 실현되는 과정을 책의 변신과 나란히 제시하며 긴장과 공포의 축으로 활용한다.

이 글이 검토하는 세 번째 붉은 방은 대니의 이 불길한 예감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 ‘레드럼’이다. 살인을 뜻하는 단어 MURDER를 거꾸로 읽은 REDRUM은 말 그대로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는 책의 살인 시도이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내 웬디와 책 간의 사투로 피범벅이 되는 붉은 방이기도 하다. 동시에 살해를 거꾸로 쓴 수수께끼 같은 글자 ‘레드럼’은 사랑하는 아빠가 자신과 엄마를 죽일 것이라는 선명한 예감을 부정하고 아빠와 가족의 재기를 믿고 싶은 어린 대니의 심리적 부인과 방어기제의 산물이다. 공포 스릴러 장르인 이 소설은 계속해서 대니에게 점멸하며 나타나는 글자 ‘레드럼’을 차츰 드러날 가장의 가족 살해 기도에 대한 긴장 가득한 암시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 ‘레드럼’은 엄마와 아빠, 집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소망과 망치로 엄마와 자신을 “교정”해 가장의 “책임”을 수행하고 권위를 회복하려는 아빠에 대한 공포 간 해결할 수 없는 교착을 드러내는 대니의 붉은 방이며 그 점에서 제인과 엘리노의 붉은 방에 연결된다(S 518)¹³⁾. 긴장의 고조와 반전을 위한 장치일뿐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집이라도 도망쳐 다른 집을 찾을 방법도 없는 현실을 대면하는 일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레드럼’의 의미가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라 ‘레드럼’의 의미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대니의 부인을 주목하는 것은 50년대의 규범적 가족과 성 역할에 대한 고착이 70년대 미국 중산층 가족에게 가져온 공포, 성 역할 수행 실패에 기인한 가정 폭력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라 폭력이 일상화된 집이라도 그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읽는 독해가 된다.

영문학도로 한때는 촉망받는 신예 작가였던 책은 알코올 중독과 분노 조절 장애로 안정된 고등학교 교사직을 잃고, 가족도 잃을 상황에 놓인다. 학생을 폭행해 해고를 당했고 원고를 흘뜨린 어린 아들의 팔을 부러뜨린 일 이후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몇 년이나 참아온 아내 웬디 역시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술친구이자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함께 뺑소니 사고의 공범자가 된 쇼클리(Albert Shockley)의 소개로 고급 리조트 오버룩(Overlook) 호텔의 겨울 비수기 관리인 직을 얻은 책은 이 일자리를 직업과 가족 모두를 회복할 기회로 여긴다. 이곳에서 겨울을 나며 구상 중인 희곡을 완성해 작가로서 재기하고 번듯한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회복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수치심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S 25). 그러나 책이 호텔에 면접을 보러 간 그날부터 대니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보이지 않는 친구라고 부르지만 실은 5~6년 후 미래의 자신인 토니(Tony)가 나타나 유리가 깨지고 물건이 부서지며 “목선 소리, 미친 사람의 소리, 익숙해서 더 무서운 목소리”가 “나와! 나와 이 개새끼! 나와서 벌을 받아!”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 46). 그러나 피가 똑똑 떨어지는 손가락이며, 목선 외침, 쿵쿵 치는 방망이 소리보다 무서운 것은 그 장면 속 방 안 화장실 거울에 충혈된 눈처럼 깜빡이는 REDRUM이라는 글자다. 공포에 압도된 대니는 제발 그만하라고 토니에게 애원해 최면 상태를 빠져나온다. 그러나 같은 장면, 같은 글자는 아빠가 무사히 일자리를 얻고 가족이 겨울 동안 텅 빈 오버룩 호텔의 관리인 숙소에서 조용하고 무탈한 날들을 보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대니에게 떠오른다. 미래의 대니인 토니가 더 부정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말해주듯 사실 대니는 이 호텔에서 일어날 일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외면하는데, 다른 한편 그 치명적인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불러와” 장차 벌어질 일을 자신에게 계속

보여주기 때문이다(S 618-19).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5살인 대니는 오버룩 호텔의 일자리가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거라곤 결혼 초 가입한 생명 보험뿐인 아빠와 엄마에게 절실한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교사이자, 작가, 남편, 아빠로서 실패한” 잭이 오버룩을 떠나면 “고물 컬러텔레비전 앞에서 면도를 안 한 실업자들이 종일 스포츠 경기나 보고 있는 어두운 방 한 칸”조차 오래 빌릴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오버룩은 아빠에게 재기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면하기 두려운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라는 사실도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한다(S 489, 416). 아빠를 광기로 몰아넣는 호텔의 마력(魔力)이 다분히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시절 부와 권력을 누린 전 세대 남성들에 대한 아빠의 선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호텔의 화려한 과거를 기록한 지하실 스크랩 북을 보고부터 아빠가 이전 세대의 강한 아버지상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다섯 살 소년인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호텔로 오기 전, 식탁에 마주 앉은 엄마 아빠의 마음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리고, 그 생각이 두 사람, 특히 엄마 마음에 불려온 슬픔과 두려움, 헛김에 아이 팔을 부러뜨리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친정엄마 집 말고는 갈 데가 없고 수중에는 모텔비조차 없는 상황에 대한 엄마의 막막함은 생생하게 느낀다(S 41). 술을 먹고 자신과 엄마에게 난폭하게 굴 때도 있지만, 대니는 책을 읽어주고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부서진 장난감 행글라이더를 고쳐주는 아빠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아빠가 술을 끊고 글을 쓰고 돈을 벌어 엄마와 자신에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버룩에서 벌어질 일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대니는 자신의 예견과 그에 관련된 불길한 징조들을 애써 부정한다. 예감이 실현되지 않았던 경우들을 떠올리는가 하면, 아빠가 엄마 목을 조른 후에도 책을 잘 읽었다고 아빠가 상으로 사준 자동차 모델을 보며 “아빠가 엄마를 너무 꼭 안으려 했다”고 생각한다(S 243). 이미 아빠가 휘두른 로크 망치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엄마가 결국 아빠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토니가 찾아와 절박하게 경고할 때조차 대니는 토니의

모습을 지워버리려 한다. 그리고 그제야 토니는 “제발, 대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사정하며 자기가 대니 자신임을, 대니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음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그 모든 수수께끼 같은 환영을 자기에게 보여준 것임을 설명한다(S 618).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죽이려 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 명백한 예견을 완전히 억압할 수도 없는 다섯 살 대니의 마음이 살해와 피로 물든 방을 예고하는 동시에 숨기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 ‘레드룸’을 만들어냈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혼벡(Elizabeth Jean Hornbeck)의 지적처럼 『사이닝』은 여성주의의 성장과 함께 197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아내 패는 남편”에 대한 문학적 반영이자 대응이다(690). 그렇다면, 남편의 살해 시도에 사력을 다해 맞서는 아내 웬디, 웬디와 대니를 돕기 위해 폭설을 뚫고 찾아온 흑인 요리사 할로런(Halloran), 호텔의 폭파와 책의 죽음 뒤 유사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셋 사이의 관계에서 가정 폭력을 통해서나 유지된 강한 아버지 상의 종말과 대안적 유대 관계에 대한 작품의 상상과 기대를 읽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의 미국은 1980년대 이후에도 레이건(Ronald Reagan)의 집권과 공화당의 보수적 가족 가치 강조, 성장하는 여성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로 『사이닝』의 다분히 대중 문학적인 위안과 함께 제시된 대안적 상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 부양자이자 보호자이고 애뜻한 부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자신과 엄마를 “교정”하는 것 외에 가장의 권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아빠를 향한 대니의 애정과 공포, 현실 인식과 부정, 현 상황への 고착과 탈출의 요구 사이 교착을 압축하는 붉은 방 역시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문학과 문화 속에 출몰했다.

5. 나가며

유령, 귀신들린 집, 고성에의 감금 같은 선정적 소재 때문에 오랫동안 통속 문학으로 폄하된 고딕 문학이 1970년 이후 진지한 비평적 관심을 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

딕 문학의 상징과 은유가 허구보다 무서운 현실을 재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쇼왈터는 여성 고딕 문학을 “점점 더 끔찍해지는 [가부장적] 현실”에 대한 묘사로 읽고 고두(Teresa A. Goddu)는 미국 고딕 문학 전통에서 노예제와 원주민 학살처럼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미국 역사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다(Showalter, *Sister's* 144; Goddu 10). 소수자 문학에 출몰하는 과거의 유령을 은폐된 사회적 약자의 폭력적 경험에 대한 은유로 해석한 20세기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유령학(hauntology) 역시 비슷한 전제를 공유한다.

『제인 에어』, 『힐 하우스』, 『샤이닝』에 나타난 붉은 방이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유사성을 가지고 공명하며 모종의 계보를 이룬다고 주장한 이 글 역시 고딕 문학에 대한 진지한 비평적 관심의 전제, 즉 고딕 장르의 상징과 은유가 끔찍한 현실을 표현하고 사유하는 문학적 방식이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 전제 아래 세 작품에 제시된 붉은 방이 안전, 보호, 사랑, 돌봄, 친밀함처럼 가정성 이데올로기가 배타적으로 집에 투사한 가치들을 억압적 가부장제 바깥에서 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공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고 논증했다.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방이 광의의 고딕 문학에서 죽음과 폭력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이 글이 다룬 붉은 방은 단지 죽음, 폭력, 구속만을 공포로 그리지 않고 그런 억압과 공포가 집으로 상징되는 삶의 불가결한 가치들과 결부된 현실, 그 현실의 외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더 근원적인 공포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고딕 문학의 은유와 상징이 현실의 반영이자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공포로 그린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기도 하다면 특정 은유나 상징의 유효성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19세기에 규범화되고 공고화된 가정성 이데올로기의 성 역할과 가족 양식 바깥에서 다양한 돌봄, 안전과 보호를 위한 연대를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이 글에서 논증한 붉은 방의 상징이 집에 대한 갈망과 공포, 그 교착을 표현하는 은유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과 가족에 대한 현재의 문학, 문화적 재현이 여전히 붉은 방의 상징을 요청하는지 묻는 것은 이 글의 분석을 활용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otes

- 1) 이후 『힐 하우스』로 표기.
- 2) 물론 카터의 다시 쓰기에서 이 방은 가부장적 폭력과 훈육의 공간인 동시에 훈육이 실패하고 여성적 저항과 욕망이 발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 3) 『제인 에어』의 “붉은 방”은 작품에서 저택의 한 방을 지시하는 고유 명사이다. 따라서 이 방의 표기는 한글의 경우 “붉은 방,” 영어의 경우 “the red room”으로 하고, 본 글이 다루는 고딕 상징으로서의 붉은 방, 또 분석 대상인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붉은 방을 지시할 때는 별도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4) 이하 본문에서 브론테의 『제인 에어』 (*Jane Eyre*) 인용 시, *JE*로 약기하여 페이지 수와 함께 표기한다.
- 5) 1870년부터 시작해 기혼 여성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국의 보통법 아래에서 기혼 여성의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귀속되었으며 기혼 여성은 계약이나 소송 등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적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재산권을 포함해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법적, 사회적 권리가 남편에게 귀속되었던 19세기 영국의 결혼법과 그 개정 과정에 대한 압축적 설명을 위해서는 Shanley, 3-21 참조.
- 6) 19세기 영국 사회의 가정성 숭배와 분리 영역 이념에 대해서는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시작해 집이 소외된 노동, 계약 관계,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경제 및 정치 영역과 구별된 사람, 돌봄, 휴식과 도덕적 정화 공간으로 상상된 사회·역사적 배경과 그 상상이 19세기 영국 사회의 규범적 이념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저작 중 하나는 『가족의 운명』(*Family Fortunes*)이다. 특히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공간으로 이념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3장 「‘덕의 산실’: 가정성 이데올로기와 중간 계급」(“The Nursery of Virtue”: Domestic Ideology and the Middle Class”)을 참조할 것. Davidoff and Hall, 149-92.
- 7) 원문은 “HELP ELEANOR COME HOME”이다. 직역하면 “엘리노가 집으로 오게 도와줘” 혹은 “엘리노가 집으로 오게 해줘”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은 이 문장을 엘리노의 엄마가 엘리노에게 혹은 엘리노 자신이 엘리노에게 하는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의 첫 두 번씩 대신 엘리노를 청자이자 설득의 대상으로 삼는 “집으로 오렴, 엘리노”로 번역한다.
- 8) 이하 본문에서 잭슨의 『힐 하우스의 유령』 (*The Haunting of Hill House*) 인용 시, *HH*로 약기하여 페이지 수와 함께 표기한다.
- 9) 작품에서 엘리노가 사용하는 방의 이름은 “파란 방”(blue room), 테오가 쓰는 방의 이름은 “초록 방”(green room)이고, 각각의 방은 이름에 부합하는 색의 가구와 커튼, 침구로 장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방의 원래 색이 아니라 피 같은 액체로 붉게 물들었을 때의 방 색에 주목해 이 방을 ‘붉은 방’으로 해석한다.

- 10) 캐한의 비평과 유사한 해석을 전개한 다른 비평가들의 압축적 소개를 위해서는 서정은, 111-12 참조.
- 11)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논문으로는 Joshi와 Lootens을 참조.
- 12) 1970년 중후반 본격화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위해서는 Cowie를 참조할 것. 특히 개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력감에 사로잡힌 70년대 중후반의 미국 노동자 계급 상황을 설명하는 5장 「집단적 우울」 (“A Collective Sadness”) 참조. Cowie, 213-60.
- 13) 이하 본문에서 킹의 『샤이닝』 (*The Shining*) 인용 시, S로 약기하여 페이지 수와 함께 표기한다.

인 용 문 헌

- 서정은. 「여성 고딕에 재현된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집과 엄마: 『힐 하우스의 유령』 원작 소설과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학 논집』, 56권 2호, 2024, 109-27쪽.
- Brontë, Charlotte. *Jane Eyre*. Penguin, 2006.
- Cowie, Jefferson. *Stayin' Alive: The 1970s and the Last Days of the Working Class*. The New Press, 2010.
- Davidoff, Leonore and Catherine Hall. *Family Fortunes: Men and Women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780-1850*. Routledge, 2019.
- Faludi, Susan. *Stiffed: The Betrayal of the American Man*. Perennial, 2000.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Yale UP, 1984.
- Goddu, Teresa A. *Gothic America: Narrative, History, and Nation*. Columbia UP, 1997.
- Hall, Catherine. *White, Male, and Middle-class: Explorations in Feminism and History*. Polity, 2007.
- Hornbeck, Elizabeth Jean. "Who Is Afraid of the Big Bad Wolf?: Domestic Violence in *The Shining*." *Feminist Studies*, vol. 42, no. 3, 2016, pp. 689-719.
- Jackson, Shirley. *The Haunting of Hill House*. Penguin, 1984.
- Joshi, S. T. "Domestic Horror." *Shirley Jackson: Essays on the Literary Legacy*, edited by Bernice M. Murphy, McFarland, 2005, pp. 183-98.
- Kahane, Claire. "The Gothic Mirror." *The (M)other Tongue*, edited by Shirley Nelson Garner et al., Cornell UP, 1985, pp. 334-51.
- King, Stephen. *The Shining*. Anchor Books, 1977.
- Lootens, Tricia. "'Whose Hand Was I Holding?': Familial and Sexual Politics in Shirley Jackson's *The Haunting of Hill House*." *Shirley Jackson: Essays on*

- the Literary Legacy*, edited by Bernice M. Murphy, McFarland, 2005, pp. 150-67.
- Murphy, Bernice M., editor. *Shirley Jackson: Essays on the Literary Legacy*. McFarland, 2005.
- Shanley, Mary Lyndon. *Feminism, Marriage, and the Law in Victorian England*. Princeton UP, 1989.
- Showalter, Elaine.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ë to Lessing*. Princeton UP, 1977.
- _____. *Sister's Choice: Tradition and Change in American Women's Writing*. Oxford UP, 1991.
- Wallace, Diana and Andrew Smith. "Introduction: Defining the Female Gothic." *The Female Gothic: New Directions*, edited by Diana Wallace and Andrew Smith, Palgrave Macmillan, 2009, pp. 1-12.
- Wood, Madeleine. "Enclosing Fantasies: *Jane Eyre*." *Gilbert and Gubar's The Madwoman in the Attic after Thirty Years*, edited by Annette R. Federico. U of Missouri P, 2009, pp. 94-110.

Abstract

The New Genealogy of the Red Room: Domesticity, Desire, and Fear in *Jane Eyre*, *The Haunting of Hill House*, and *The Shining*

Jung Eun Se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d room motif in *Jane Eyre* (1847), *The Haunting of Hill House* (1959), and *The Shining* (1977), arguing that despite their disparat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the three texts construct the red room as a site where the longing for domestic care and the fear of patriarchal violence converge. While each work presents a differently configured ‘red room’—Jane’s punishment chamber in Gateshead, the blood-like inscription on Theo’s wall in Hill House, and Danny’s ominous REDRUM in *The Shining*—all three spaces stage encounters with figures who are simultaneously sources of protection and agents of harm. These ambivalent encounters reveal that the desire for safety, intimacy, and love remains tethered to the very familial structures that also generate oppression. By situating the novels within the rise of domestic ideology in Victorian Britain and mid-century America,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terror of the red room lies not only in death or violence but in the structural impasse wherein essential forms of care become accessible only through patriarchal authority. The recurring affective register of fear, grief, and denial thus signals a historically specific inability to imagine security and attachment outside normative family formations.

Key words: red room, ideology of domesticity, *Jane Eyre*, *The Haunting of Hill House*, *The Shining*

논문접수일: 2026.1.15

심사완료일: 2026.1.30

게재확정일: 2026.2.08

이름: 서정은

소속: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이메일: jseo@ut.ac.kr